

<도서관 텃밭 낭+독회>를 함께 할 분을 모십니다



도서관 텃밭
도서관을 이용하는 또 다른 방식



낭+독회
책을 읽는 새로운 방식

느티나무도서관 3층 물음표와섬표(‘물섬’)에 ‘텃밭연습장’이 마련되었습니다.
텃밭연습장은 주민들이 함께 채소를 수확하고 요리하고 판매하는 실험장이 될 것입니다. 또한, 텃밭연습장은 이웃을 만나고 협력하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.

‘텃밭연습장’을 시작하며 ‘텃밭 낭+독회’를 열려 합니다.

도서관의 텃밭연습장이 어떤 가치로 움직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최훈근의 『흙 속의 보물 지렁이』를 읽으며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.

읽을 책: 최훈근의 『흙 속의 보물 지렁이』



‘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.’라는 속담 속의 지렁이는
징그럽고 하찮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.
그런데 그 지렁이가 사실은 흙 속의 보물이라고 합니다.

지렁이가? 정말? 어떻게? 궁금해집니다.
지렁이의 비범함을 함께 알아볼까요?
책을 읽으며 지렁이의 비밀을 찾아갈 분들을
기다리고 있겠습니다.

일시: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(오전 10시 30분 ~ 12시)

참여방법: 온라인(줌) + 현장참여(느티나무도서관 3층 물섬)

참여문의: 070-7777-4687